

김민환의 세상읽기



5월이 오면 보고싶은 얼굴

경남 울산의 국수 공장 아들이었던 고복수는 20대 초반에 폴립비아레코드가 주최한 부산 콘서트대회를 거쳐 서울에서 열린 본선에서 3위를 차지해 가수로 데뷔했다.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애조 띤 음색과 창백이 유일한 한국인 음반업자 이철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철은 그에게 1934년에 '타향'을 부르게 했다. 이철의 예감은 적중했다. '타향살이'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공전의 빅히트를 기록했다.

1934년만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국민의 80%가 농민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고향의 부모와 땅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고향에 있어서 식민지 생활은 타향살이였다.

고복수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하고 물으면, 식민지 백성들은 나라 잃은 지 몇 해째 인가를 헤아리며 울먹이곤 했다.

고복수는 이듬해인 1935년 '사막의 한'을 불렀다. 이 노래는 식민지 생활을 사막의 유랑으로 바꿔놓았다. 식민지 백성들이 '타향'

으로 모두 고향을 떠났다면, '사막의 한'으로 사막을 유랑하는 나그네가 된 셈이었다.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도 사막의 길 / 사막은 영원의 길, 고달픈 나그네 길 / 낙타 등에 꿈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면 / 황혼의 지평선에 석양도 애달파라.

저 언덕 넘어갈까, 끝없는 사막의 길 / 노을마저 지면은 돌 곳 없는 이 마음 / 떠나올 때 느껴져 눈물 뿌린 그대는 / 오늘 밤 어느 곳에 무슨 꿈을 꾸는고.

사막에 달이 뜨면 천지는 황막한데 / 끝없는 지평선도 안개 속에 쌓이면 / 낙타도 고향 그리 긴 한숨만 쉬고 / 새벽이슬 촉촉이 옷깃을 적시우네.

이 노래는 유행가였지만 유행가가 아니었다. 당시 서울의 전문학교 학생들은 주막에 모여 목이 쉬도록 이 '사막의 한'을 부르곤 했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가장 비장한 운동가요였다. 어찌 학생들뿐이었으랴. 식민지 생활이 유행가를 온 백성의 운동가요로 만들었다.

상황이 유행가를 운동가요로 바꿔놓는 사

례를 나는 광주에서 직접 겪었다. 내가 전남 대 교수가 되어 광주로 내려온 것은 1981년 9월이었다. 아마 그 이듬해 5월이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귀띔해주었다.

18일에 주룩주룩 비가 내렸다. 이 건물, 저 건물에 흠뻑 젖어 있던 학생들이 비 내리는 교정으로 몰려나오더니 대오를 지어, 하루 종일 학교 구내를 돌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애절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빗속의 교정을 울렸다.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까? 비에 흠뻑 젖어 학생들이 쫓겨나고, 그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이 생각난다. 80년의 광주를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지낸 것이 미안해지고, 80년의 한을 유행가를 때웠다. 학생 대역석이 우산도 받지 않고, 주저앉아 유행가를 부르고 있었다. 대중가요 가수 현미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걸이 / 휩쓸고 지나

간 허황한 거리에 /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 보고 싶은 얼굴

울먹이다 울다 하며 부르는 그들의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모퉁이 송연해진다"는 말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실감했다. 그 유행가는 80년대 광주에서 어떤 운동가보다 더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처연한 운동가요였다.

30여 년이 훌쩍 지나지만 요새도 '임을 위한 행진곡'과 '보고 싶은 얼굴'을 들으면 나는 비 내리던 날, 그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이 생각난다.

80년의 광주를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지낸 것이 미안해지고, 80년의 한을 유행가를 때웠다. 학생 대역석이 우산도 받지 않고, 주저앉아 유행가를 부르고 있었다. 대중가요 가수 현미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그 대역석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들과 이 5월에 노래방이라도 가서 목이 쉬도록 '임을 위한 행진곡'과 '보고 싶은 얼굴'을 함께 부르고 싶다.

<고려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5월이었으면 좋겠다



하성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속에는 아주 소박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숨 쉬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께 만난 것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 밤낮을 고생하셨다. 부모 자식이라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버티어 오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 진한 감동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과 가정을 위한 과업과 과업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아무리 아낌없이 베풀어도 그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라면 더욱 공허할 것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5월!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나게 하는 5월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상대적인 빈곤감과 물질적 부담으로 힘겨운 5월을 보내고 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대중경 서품 4장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대종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 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어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는 수많은 물건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고, 빠른 변화 속에 귀한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은 물질듯이 밀려오는 물질세력에 힘없이 무를 꿇고 물질을 신봉하며 물질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냉철히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유용비를 만들기 위해 물건을 훔치고, 가족을 살해하며, 친구의 돈을 갈탈하고, 어린 아이까지 성매매를 시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진정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먹는 것을 눈 속여 팔면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까?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이가 제 부모에게 효를 다 할 것인가? 명품 가방을 선물해야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큰 것일까? 고급승용차로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인정받는 삶일까? 고액학원을 보내야만 진정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

대기업에 취직해야 성공한 인생일까?

어린 시절 우리가 주고받던 선물은 가슴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과도 같은 정성과 사랑, 존경이었다. 좀 촌스럽지만 이런 가정의 달 5월은 어떨까 싶다.

어린이날에는 부모님 도리로 너희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날에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하루 정도 편히 쉬 수 있도록 휴식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스승의 날에는 내 인생의 큰 스승님이신 부모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생님께 진심 어린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다. 성년의 날에는 이 사회의 주역들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해 주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부의 날에는 또 다른 한쪽이 되어준 소중한 인연에 손을잡아 주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5월이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소중하고 가정이 진실한 이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社說

도 넘은 5·18 폼하, 정부는 대체 뭘하나

내일이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한 5·18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공식 사망자 수가 확인되지 않고, 발표 명령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희생자의 원혼조차 말끔히 달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5·18에 대한 폄하와 비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이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는 게시공간에 5·18 당시 희생된 시민의 사진과 계엄군에 붙잡혀 포박된 시민들을 '홍이'로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으며, 상무관 내에 관이 풀지어 놓여 있는 사진을 게시해 놓고 '배달될 홍어 포장 완료'라는 글을 달았다. '홍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다.

이 사이트가 아무리 보수 색채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는, 상상할 수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글을 게시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글을 올린 회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인지 묻고 싶다. 광주시민

들이 '홍이'로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이 안치된 관을 '배달될 홍어 포장'이 아니냐 제정신들인가.

또한, 일부 종합편성채널도 80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치른 지 오래이므로, 5·18에 참여해 희생과 부상당한 시민들을 국가공유자로 대우하지는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런 반민주적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광주시가 5·18을 왜곡, 비하하는 사이트와 게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 이들에 대한 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편 역시 파문에 대해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천명해야 한다. 죽을 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어낸 5월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전남 특성화고 취업률 대책 시급하다

최근 고졸 취업 붐과 함께 특정 분야 인제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최고 10% 가량 차이가 난다.

올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취업률은 35.2%, 전남은 37.6%로 집계됐다. 10곳의 특성화고와 1곳의 마이스터고가 있는 광주는 전국에서 12위, 59개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가 개설돼 있는 전남은 10위로 모두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구조가 취약한 게 주된 원인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상당수가 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때문이다. 취업자 중 51%는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렸고, 일부는 공공기관을 노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추이에도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 주목된다. 광주지역 마이스터고인 자화동철비고의 취업률은 97.2%, 전남지역 향안물류고의 취업률은 71%로 다른 특성화고와 큰 격차를 보였다.

물론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보다 지원금이 더 많고, 최우수 학생이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철저히 맞춤형 교육을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와 같은 수준으로 역량을 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한다. 지원을 늘려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우수학생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특성화고 역시 고졸 취업 증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도취해 주먹구구식 교육에 머문다면 구조조정 대상에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소설가 이청준의 어머니는 궁핍한 살림에 홀몸이었지만 깨끗하게 아들을 키웠다. 유학한 아들의 학비를 대느라 집까지 팔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을 정도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오전 8~10시에는 아황산가스도 많고, 오후 2~4시에는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 이 대기오염물 등이 복사역전(지표역전)층에 갇혀 있을 때의 달리기(조깅)는 건강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달리기와 최적 장소와 시기는 언제일까?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간선도로 쪽은 자동차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납에 의해 청소년들의 학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가급적 수목이 우거지고, 녹지로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산림이 형성된 곳을 선택해 달랏야 한다. 항공성 물질인 파편치도 만날 수 있다. 황사는 단순히 모래 바람이 아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µg/m³ 이상 검출됨에 따라 광상시보다 4배 이상의 먼지를 마시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발생빈도가 높아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돼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오전 8~10시에는 아황산가스도 많고, 오후 2~4시에는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 이 대기오염물 등이 복사역전(지표역전)층에 갇혀 있을 때의 달리기(조깅)는 건강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달리기와 최적 장소와 시기는 언제일까?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간선도로 쪽은 자동차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납에 의해 청소년들의 학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가급적 수목이 우거지고, 녹지로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산림이 형성된 곳을 선택해 달랏야 한다. 항공성 물질인 파편치도 만날 수 있다. 황사는 단순히 모래 바람이 아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µg/m³ 이상 검출됨에 따라 광상시보다 4배 이상의 먼지를 마시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발생빈도가 높아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돼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오전 8~10시에는 아황산가스도 많고, 오후 2~4시에는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 이 대기오염물 등이 복사역전(지표역전)층에 갇혀 있을 때의 달리기(조깅)는 건강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런 어머니가 차매에 걸렸다. 어느 날날 찾아갔더니 아들 이름도 잊은 채 "손님 오셨구마. 우리집엔 빈방도 많으니까 편히 쉬었다 가"라고 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시인 정진규는 '눈물'이란 시에서 차매를 '어떤 빈틈도, 행간도 없는 완벽한 감옥'이라 했다.

인지저하증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83세에 차매임을 알고, 호트러지는 생각을 추스르며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지금 내 인생의 황혼으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인 낸시는 남편과 더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길고 긴 이별'이라 했다. 영화 '벤히'의 배우 찰턴 헤스턴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작별하고 싶다"며 비디오 '인지저하증'이나 '노심병'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기고

아침 달리기는 피해야 한다



정선호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준비단장

그러나, 이런 달리기를 무조건 해서선 안 된다. 왜냐하면 대기오염과 관련된 역전층 때문이다. 지표로부터 약 10~15Km의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감소한다.

하지만, 여러 요인과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역전층이라 한다. 이런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역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돼 오염물질의 축적이 발생한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지표면이 가열돼 낮까지는 일반적인 기온분포를 나타내다 해가 뜨면서 열복사에 의한 지표 냉각이 시작되므로 지표면 근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 역전층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복사역전 또는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 지표역전이라 한다.

이 역전층은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 해 뜨기 직전에 강하게 형성돼 공기의 수직이동과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지표면에 대기오염물질로 꽂 차 있다.

요즘은 달리기에 앞맞는 계절이다. 초여

름으로 접어들어 몸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달리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내키면 즐길 수 있는 게 달리기의 매력일 뿐 아니라 일상 속 바쁜 시간을 쪼개 이만큼의 건강 효과를 얻어내는 운동도 드물어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운동이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폐활량을 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다른 때보다 질 좋은 산소를 다량 소모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오염되지 않는 그야말로 깨끗한 공기 질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최근 대도시의 대기 환경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도시나 일부 공장지대의 공기에는 미세먼지가 많다.

때로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인 황사도 만날 수 있다. 황사는 단순히 모래 바람이 아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µg/m³ 이상 검출됨에 따라 광상시보다 4배 이상의 먼지를 마시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발생빈도가 높아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돼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오전 8~10시에는 아황산가스도 많고, 오후 2~4시에는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 이 대기오염물 등이 복사역전(지표역전)층에 갇혀 있을 때의 달리기(조깅)는 건강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달리기와 최적 장소와 시기는 언제일까?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간선도로 쪽은 자동차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납에 의해 청소년들의 학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가급적 수목이 우거지고, 녹지로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산림이 형성된 곳을 선택해 달랏야 한다. 항공성 물질인 파편치도 만날 수 있다. 황사는 단순히 모래 바람이 아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µg/m³ 이상 검출됨에 따라 광상시보다 4배 이상의 먼지를 마시기

파산 절차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브로커 근절을

출퇴근길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을 꼽으려면 단연코 홍보 광고지들이다. 저녁에는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 토크쇼 같은 게 많지만 아침에는 유난히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준다거나 파산자들의 회생을 돕겠다는 전단지가 많다.

그런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전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파산자나 신용불량자가 하루아침에 그런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아무리 허위와 과장이 판친다 해도 웬만큼은 그런 구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전단을 뿌려 홍보를 하는 게 아닐까. 하물며 파산 회생 분야는 일

반 대부업자들의 고리대골 광고지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민들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파산을 당했을 경우 비싼 돈 들여가며 이런 전단지 쪽 사람들에게 회생을 부탁할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은 돈으로 제대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전단지 내용을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파산 회생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 변 탕감", "빚을 대신 없애드립니다", "100% 면책 가능 무료 상담하세요" 등 빚

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솔깃할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법원은 가짜 파산자를 걸러내느라 심리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런 게 브로커들인지, 제대로 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하물며 당사 발등의 불이 될 어진 파산자는 이런 데라도 잘만 의탁하고, 파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손쉽게 빚을 털어 낼 수 있다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이다.

파산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작해 채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파산신청을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고 들었다. 이렇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 때문인 것도 큰 이유가 된다. 아예 법무사들이 아파트 등기를 내주는 것처럼 파산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면 이런 브로커들도 사라질 것이다.

외국의 경우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밟기 전 검증된 기관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도입하면 어떨지 건의해 본다. ▲윤석천·광주시 남구 월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